

	보 도 자 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	
	배포일자 2022년 2월 8일(화) 총 3매	 환경특별시 인천		
담당 부서 마이스산업과	담 당 자 • 마이스유치팀장 구미정 ☎440-1511 • 담당자 심지은 ☎440-1512			
사 진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 “K-UAM 콘팩스” , 세계적인 국제회의로 희망찬 도약
- 「2022 K-컨벤션 육성·지원 사업 공모」 최종 선정, 국비 6천만 원 확보 -
- UAM 산업 선도하는 국제 컨벤션 도시로 성장 기대 -

인천시의 UAM 컨벤션이 세계적인 국제회의로 비상한다.

인천광역시는 미래 산업 육성 특화 컨벤션인 “K-UAM* 콘팩스”가 지난 2월 4일,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와 (사)한국 PCO 협회가 주관한 <2022 K-컨벤션 육성·지원 사업 공모전>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.

* UAM(Urban Air Mobility, 도심항공교통)

이 사업은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세계적인 국제회의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개최횟수와 참가규모 등에 따라 희망(신규)·유망·우수·대표 총 4단계로 나뉘 14개 내외의 국내 컨벤션을 선정, 각 단계 별*로 재정 및 해외홍보 등을 지원한다.

* 희망(신규 6개 선정 - 각 6천만원, 1년간 지원), 유망·우수·대표(신규 각 1개 선정 - 각 8천만원, 1억 2천만원, 1억 5천만원, 3년간 지원), 지속지원(5개)

시의 “K-UAM 콘펙스” 는 2회 이내 개최로 희망(신규)단계에 해당되어 국비 6천만 원을 받게 됐다.

지난해 11월 인천시 주최, 항공우주산학융합원, 인천관광공사, 인천국제공항공사, 한국무인이동체연구조합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K-UAM 콘펙스는 코로나19 상황 속 첫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▲참가규모 650명, 162개 기업(기관) 참여, 전시부스 20개 운영 ▲국토부 UAM 기체 실증시연 행사 연계 ▲UAM 산업발전 MOU 체결(LA시, 인천국제공항공사, 현대, 대한항공 등) ▲48명 국내·외 연사 참여의 하이브리드 콘퍼런스 개최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.

올해는 11월 8일~9일까지 양일 간 인천파라다이스시티에서 총 850명 참가규모의 온·오프라인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며, 2024년에는 첫 회 참가규모 대비 매년 30%이상 늘어난 총 1,400명 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.

한편, 정부에서는 UAM 산업을 핵심 미래성장 동력으로서 2024년까지 UAM 비행실증을 거쳐 2025년부터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, 인천시는 인천공항과 항만 등 지리적 이점을 통해 “항공 융·복합 新산업 서클벨트 구축” 등 UAM 산업의 최적지로서의 도시경쟁력을 갖추 나갈 계획이다.

홍준호 시 문화관광국장은 “K-UAM 콘펙스를 통해 우리 인천시를 대한민국 UAM 산업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국제 컨벤션 도시로 육성

하여 항공산업과 마이스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것”이라며, “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다양한 컨벤션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<관련사진>

